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22 년 상반기 뉴스제휴 평가 일정 확정

2022-04-29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22 일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2 년 상반기 뉴스제휴 평가 접수 일정을 확정하고, ▲카테고리 변경 심사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2022 년 상반기 뉴스제휴 접수 5 월 2 일 시작

2022 년 상반기 뉴스제휴 신청은 5 월 2 일(월) 0 시부터 5 월 15 일(일) 24 시까지 2 주간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6 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 주, 최장 10 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 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된 이후 1 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 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며,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 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제휴는 70 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 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 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카테고리 변경 심사 방식 개정...위원의 과반수 동의 얻어야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카테고리 변경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찬반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카테고리 변경은 뉴스 제휴 심사에 준하여 평가하고 통과 점수를 얻어야만 가능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평가에 참여한 심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카테고리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제휴매체는 최초 제휴 계약 체결일로 1년이 되는 날부터 카테고리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변경을 원하는 매체는 신청 시 매체소개서 내에 '카테고리 변경 신청 사유서'를 추가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변경 신청 및 평가 일정은 2022년 상반기 뉴스제휴 신청과 동일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7기 위원장단 구성...위원장에 이상민 위원 선출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전원회의를 통해 7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구성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상민 위원(한국소비자연맹 추천)이 선출되었다. 1소위 위원장은 정미정 위원(한국언론학회 추천), 2소위 위원장은 이종엽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으로 각각 정해졌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회의 시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7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상민 위원장은 "7기 심의위원회도 이전과 동일하게 소위원회의와 전원회의 등을 통해 심사 및 평가업무를 충실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